

강제환우, 경제성 회의적이나 성행하는 속사정?

□ 취재/김동진 기자

계란생산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는 강제환우가 생산조절은 물론 경제적인 이윤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환우를 시킨다 해도 경제적으로 적자를 겨우 모면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의 경우 무창계사에서

는 환우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독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무창계사에서 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난가변동과 중량등급 위주의 유통으로 특란의 선호도가 높아 상인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환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질병과 난질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환우에 대한 설문조사

생산자들이 행하고 있는 강제환우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채란업을 경영하고 있는 채란농장(20개 농장)을 대상으로 환우 횟수,



△ 강제환우는 질병, 난질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계란 수급조절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우결정 시기, 환우기간중의 폐사율, 환우후 질병 저항력, 수당 환우비용 등에 대한 설문문을 조사하였다. 설문문에 응답한 농장의 계사형태는 무창계사가 10개농장, 유창계사가 10개농장으로 규모는 3만수 이상의 농가인데 계사형태에 관계없이 강제환우를 실시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환우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농장에 해당하는 95%가 1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2회까지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회까지 하는 농가 중에는 닭의 건강상태와 난가전망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2차 환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환우 결정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노계도태 전후(보통 65주령 전후)에 한다는 대답이 40%로 가장 높고 난가하락시가 35%,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질때가 10%를 보였으며 기타가 15%로 나타났다. 이 답변에서는 대부분 노계도태를 할 시점에서 환우를 시켜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면서도 난가가 하락할 시에는 많은 사양가들이 차후 전망을 보고

환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문항은 경제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항목의 요인에 의해서 항상 환우에 대비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사항에 답변한 농장들은 닭 일령, 산란율, 난가전망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환우시기를 달리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외에도 난각질이 거칠어져 상품가치가 떨어질때, 국내 유통상 큰알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식생활로 인해 계란 상인들이 큰알을 요구할때, 노계값이 싸거나 노계가 밀려 도계장으로 노계를 처리하기가 힘들때 증추구입비가 없을 때 부득이 환우를 실시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우기간중의 폐사율을 묻는 질문에는 계사형태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10%이하의 폐사가 70%를 차지하였고 11~20%의 폐사율을 나타내는 농장도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닭의 건강상태, 환우방법, 환우주령, 계절 등에 따라 폐사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겨울보다는 여름에 폐사가 많으며

주령이 많을 수록 폐사가 많고 환우기간이 길 수록 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하고 일령이 낮은 닭의 경우 보통 2~3% 정도의 폐사가 나고 상태가 나쁘고 일령이 많을 경우는 10%를 넘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5%정도의 폐사는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우후 질병저항력에 대한 질문에는 70%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20%는 약하다로, 10%는 강하다로 대답하여 약하기는 하나 환우하기 전과 비교해 볼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우비용(노계값 제외)에 대한 질문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간과 일령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 환우기간이 40일 정도면 수당 700원, 60일 정도면 1,500원까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장의 강제환우 사례

환우방법에 대해서는 농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기본 골격은 절식, 절수, 점등을 통해서 닭에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가함으로써 환우를 유도하고 환우

를 시작하면 폐사를 줄이면서 서서히 사료량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환우를 시키고 있다.

보통 50~60일의 강제환우 기간은 환우 전 스트레스 기간(7~10일), 환우 휴식기간(20~25일), 회복기간(20~25), 산란재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환우 방법은 약 2~3일간 절식 및 절수하는 방법과 5~7일간 급수는 하되 절식시키는 방법 및 강제환우 1개월 전 부터 점등시간을 갑자기 8시간 정도로 줄이고 사료의 질을 낮추어 환우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무창계사에서 환우를 실시하는 S농장의 경우 72주정도 까지 산란을 하고 1차 환우를 시키는데 사료를 절식시키고 점등시간을 줄여주면 몸무게가 감량되는데 보통 수당 2.3kg이던 닭이 28%까지 감량을 하여 약 1.5kg이 되면 점차적으로 사료량을 늘려간다. 1일 5번까지 사료량을 늘려주면 환우후 45일이 될때 50%의 산란율을 기록하며 60일이 되면 산란피크에 도달한다. 1차 환우를 시킬경우 환우시키는 마지막 산란율에 비해 보통 12~13%까지 피크를 올릴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이는 만약 환우전의 산란율이 60%였다면 환우후 산란피크는 72~73%까지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까지의 환우비용은 대략 1,500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 이후 6개월 정도의 지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충남 당진에서 7만수 산란계(개방계사)가 관리되고 있는 K농장의 환우사례를 소개해 본다. 이 사례는 유일하게 환우를 잘 시키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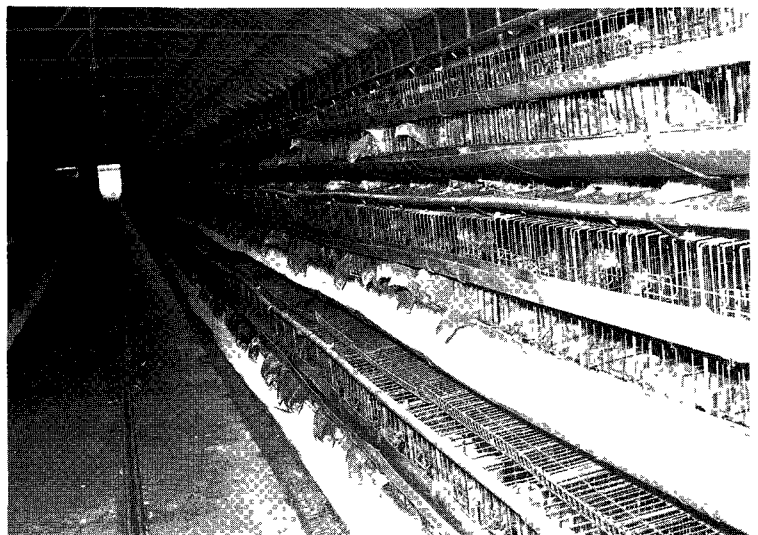
이 농장은 환우를 시작해서 산란피크에 도달하기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며 그 비용은

수당 650원~700원 정도가 든다. 또한 80주 정도(산란율 보통 65~70% 유지)에 환우에 들어가며 8개월 정도의 산란 지속성을 기록하는데 도태시의 산란율은 60%를 넘는다.

이 농장은 타농장들에 비해 성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농장이나 마찬가지로 이 농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추관리이다. 어느 농가도 관리가 어느정도 되면 산란피크를 높게 기록할 수는 있지만 닭의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지속성이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환우를 실시하여도 그 성적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농장의 중추관리를 간단



△ 균일도를 중심으로한 중추관리는 환우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히 살펴보면 중추를 A형 3단 케이지 제일 위칸에는 중량이 많은 닭을 아래쪽에는 중량이 적은 닭을 선별하여 영양분을 달리한 사료를 먹이면서 균일도를 맞춰간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이 일만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며, 닭 일생동안 최소 5번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진다. 사료급여의 경우도 1일 5번을 준다. 번거롭더라도 사료의 70%가 함유된 분진을 닭들에게 완전히 섭취가능토록 하기 위해 계속 저어주며 3일에 한번씩 급이기에 사료가 남지 않을때 까지 급이를 시켜 사료허실량을 충분히 줄여주는 작업을 한다. 즉 편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닭이 쾌적 환경에서 충분한 사료를 먹게되면 어느 닭이라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 농장의 지론이다. 만약 닭의 체중이 2.0kg 이상이 된다면 그 농장은 실패한 농장이라 단정해도 될 정도로 중추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농가도 환우를 권장하지 않았으나 국내의 불합리한 계란유통과 판매에만 신경쓰면서 생산량만을 부추기는 중추업자들의 태도가 못마땅하여 환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다.

환우관리를 보면 환우전 이 농장에서는 반드시 영양제 및 항생제 크리닝을 시키고 환우에 들어간다. 이는 모든 질병은 닭이 허약할때 올 가능성이 크고 산란 지속성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 80주(산란율 65%) 정도에 보통 환우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절수는 시키지 않으며 27~28%의 감량을 시키는데 보통 중량이 2.0kg나가는 닭을 감량하는데는 11일 정도 걸린다. 그 이후 중추사료를 20여일 동안 급이를 하는데 사료를 급여하고 3일째 부터 환우전과 동일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타방식과 다르다. 건강한 닭일 경우 오히려 제한급이를 하지 않아도 닭은 필요한 만큼의 사료를 먹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유창과 무창에서 기간을 같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환우를 시켜본 농장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며 무창계사가 오히려 점등이 수월하고 아무래도 한동에 들어가는 계군수가 많아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창계사는 유창계사보다 산란지속 기간이 짧다는 단점도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를 사양가들은 무창계사 전용 사료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포천의 A농장의 경우 주령이 낮은 계군이 환우후 산란지속기간과 산란피크가 높게 나타났으며 52주에 2개월 동안 환우시킨 계군은 8개월 정도의 산란지속기간을 보인 반면 65주에 2개월 동안 환우를 시킨 계군은 6개월 정도의 산란지속기간을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수익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3. 강제환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대부분의 농가가 노계를 도태하고 신계를 교체하는 것이 경제성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환우를 부득이 시켜야만 되는 현실이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농가들을 통해 수렴된 내용중 환우를 할 경우 경제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현상유지 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면서도 부득이 환우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계란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고 생산비선 이하로 난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매우기 위한 방편으로 환우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환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농가의 경우 환우전에 질병대책을 세워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는 농가가 극히 드물어 오히려 질병이 확산될 소지가 높음을 우려하는가 하면 생산량 증가로 인한 난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측면에서 도태일령이 지나면 노계도태를 반드시 실시해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없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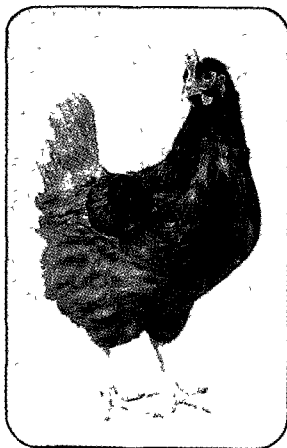
또한 환우에 들어가기 전에 뉴켓슬 등 질병예방을 확실히 실시하고 환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여건에 따라 환우를 하다보니 이 방면에 소홀해지기 쉬워 질병 등에 의한 집단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그리고 농가들 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당장 중추를 구입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외상사료를 쓰면서까지 환우를 실시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잘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상황에서 굳이 환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생산자들은 자숙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선 대책으로는 환우를 하지 않는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노계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노계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성적이 낮은 계군들을 과감히 도태시킬 수 있는 시설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유통구조 개선으로 난가의 변동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일도 시급하다 하겠다. **양계**

노 계 유 통 전 문



노계유통에 일익을 담당할
대림유통이 탄생했습니다.
양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대 립 유 통

대 표 변 광 일

충남 천안시 다가동 373-3 (삼화B/D302호)

Tel: (0417)574-4600-1

FAX: (0417)572-5949